



화단 및 분화용 기린초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Stonecrop(*Sedum kamtschaticum*) Native to Korea.

초여름에 포기위에서 수북이 피어나는 노란 꽃도 예쁘지만 척박한 곳이든 바위틈이든 어디서든 잘 어울릴 줄 아는 두툽한 잎이 보기가 좋다. 기린초는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써 어떤 화단이던지 잘 어울리며 키가 크지 않아 다른 것들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포기를 분명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확실한 포인트를 차지한다. 야생화 분경을 만들 때 중요한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어린순은 봄에 뜯어 나물로 데쳐 먹기도 하며 백삼칠(白三七)이라고 하여 약초로도 쓰인다.

1. 기원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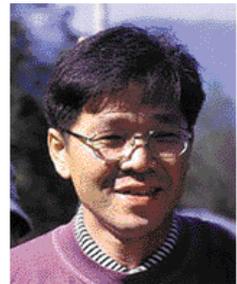
속명의 *Sedum*은 라틴어의 *sedes*(앉는다 또는 자리)라는 뜻으로 자라는 습성이 바위에 붙어 앉아 자라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산에 양지바른 등산로 주변이나 바위에 붙어 자란다. 유사한 것으로 잎이 가는 가는기린초와 태백산이나 금대봉에서 발견되는 태백기린초, 울릉도에 나는 섬기린초 등이 있다.

2. 생김새 및 생태특성

자라는 곳의 환경에 따라 키가



▲ 가는 기린초 꽃 핀 모습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금대기린초 만개 모습

20-30cm까지 자란다. 포기 가운데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포기를 잘 형성하며 포기들이 모여 쉽게 군락을 만든다. 잎은 주걱모양으로 서로 어긋나서 달리는데 두텁게 살이 쥘 다육질로써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나 있다. 6-7월경 노란 꽃이 줄기 끝에서 피는데 다섯 장의 작은 꽃잎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피어난다. 자생하는 환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추위나 더위 및 건조에는 매우 강하지만 습기에는 약한 편이다.

3. 기르기

기린초만큼 잘 자라는 야생화도 드물다. 씨앗 뿌리거나 포기나누기, 삽목하기 등 다 잘 된다.

가. 씨앗으로 번식하기

8-9월에 잘 여문 씨앗을 받아 바로 뿌리거나 모래와 섞어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듬해 봄에 뿌려도 된다. 파종상토는 원예용 조제상토를 쓰면 균일한 묘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씨앗이 아주 작은 미립종자이기 때문에 모래랑 같이 섞어 뿌려주는 것이 좋으며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흙으로 덮지 말고 축축한 신문지나 망사를 덮어주는 것이 좋다.

나. 삽목으로 번식하기

줄기를 보면 잎이 나온 마디들이 있는데, 이 마디들이 2-3개 정도 들어가도록 잘라 깨끗한 모래에 꽂아두면 거의 100% 새뿌리를 내린다. 생육기 동안에는 어느 때 좋지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너무 고온다습하면 조직이 물러지거나 썩을 우려가 있으므로 한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충분히 물을 주고 바람을 통하게 하면서 차광 정도를 얇게 하고 서서히 광선에 쬐인다.

다. 화단에 아주심기

화단에 어린 묘를 심은 다음에는 거기서 새뿌리가 잘 나오도록 물을 충분히 준다. 심은 지 2주 정도 지나면 새뿌리를 내리게 된다. 새뿌리가 충분히 내린 다음에는 줄기를 위에서 잘라주어 측지의 발생을 늘려야 포기가 커진다. 화단에서는 일부러 포기를 키울 필요가 적겠지만 화분에 심었을 때는 줄기들이 많아야 보기가 좋으므로 시도해 볼 만 하다.

라. 비료주기 및 병해충 퇴치하기

물이 잘 빠지고 약간의 거름기만 있으면 잘 자란다. 부엽퇴비나 완효성 비료 같은 것을 심기 전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 특별한 병해충은 없으나 너무 습하면 줄기 아랫부분이 물러지는 연부병이나 뿌리썩음병이 생기므로 습하지 않도록 하고 여름 고온건조기에는 응애가 꽤 발생하는데 잎에 2~3 마리 정도 보이면 응애약을 뿌려준다. 🌿